

## 다국적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중 R&D센터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김재경

Qualcomm CDMA Technologies VP, Ph.D

이봉수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 An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Determinants Influencing Re-invest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Focusing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Invested Local R&D Centers in Korea

Jae-Kyung Kim<sup>a</sup>, Bong-Soo Lee<sup>b</sup>

<sup>a</sup>Qualcomm CDMA Technologies,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5 January 2019, Revised 23 February 2019, Accepted 27 February 2019

### Abstract

Recently there are sharp increase in number of studies related with facilitation of Inward-FDI 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vested in Korea region. The most of studies are mainly purposing to survey - 1)how Korea Government makes counter plan and assistance policy to make foreign capital and Inward-FDI more attractively and aggressively, 2)what is the new framework or system for Inward-FDI policy, 3)what is economic effect of Inward-FDI, 4)what are determinants or conclusive factors of FDI in Korea. Under this situation, the goal of this report is to find out the new way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invest continuously thru getting their better investment performances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Marketing Competence, Management Ability, Localization Management Skill,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and R&D Competitiveness which would be much more important determinants influencing re-invest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Kora. This repor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 and comprehensive analysis will eventually help policy makers to implement the appropriate strategy and support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proceed positive circle's re-investment activity in the end.

**Keywords:** Inward-FDI, Marketing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Localization Management Performance,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Performance, R&D Competitiveness

**JEL Classification:** F23, M16

\* 이 논문은 무역학회 2018년 춘계세미나 발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sup>a</sup> First Author, E-mail: jkkim0521@hanmail.net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bongsoo@dankook.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투자국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안과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해외자본의 유치는 국가 및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지도 약 50년 이상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라는 모토 하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1962년에 시행되었고, 외국기업의 유치와 외자도입 정책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개방화 정책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정부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규 발굴하고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개발과 지원에만 초점을 둔 반면에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소홀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437억 달러인데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229억 달러에 그쳤으며, 2018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이 192억 달러로 2017년 실적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0여년 이상 그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저렴하고, 입지조건과 투자국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해외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역으로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의 투자성과 향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018년 초에 불거진 한국GM 군산공장의 폐

쇄 소식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가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에게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대내적인 현실이 전개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두 강국의 무역전쟁 일촉즉발의 글로벌 경제상황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수출전략에도 먹구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시적이고도 중장기적인 현명한 대외 무역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이 투자성과와 재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재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 2019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막고, 국내투자 확대와 재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와 재투자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전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개념,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FDI)의 흐름 파악 및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거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Table 1.** Trend of Inward FDI Policy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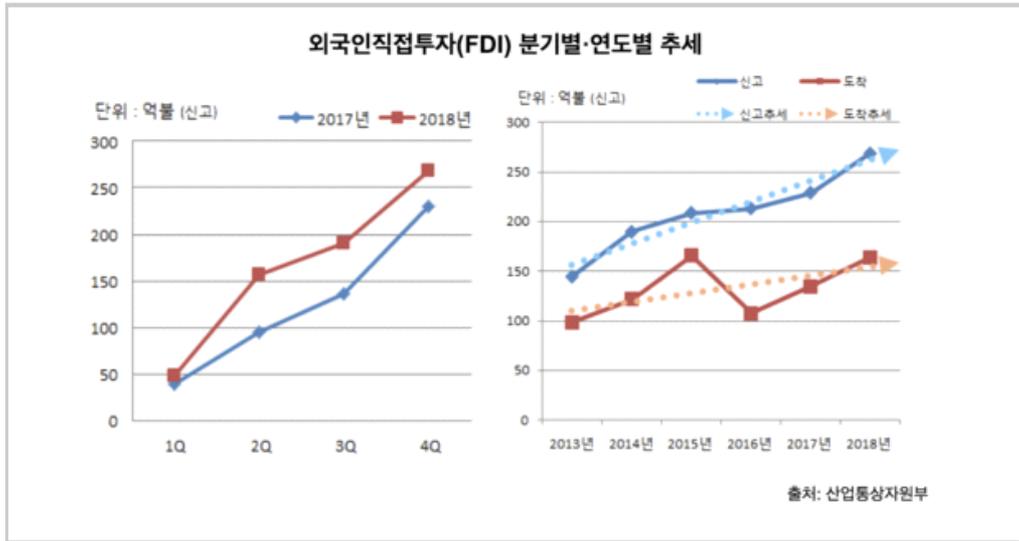
구분	내 용
제한적 규제정책 (1960~1965)	한국정부는 최초로 1960년 1월 1일 『외자촉진법』(법률 제 533호)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체로 질 보다는 양을 중시하였으며, 개방보다는 제한적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소극적 유치정책 (1966~1972)	1969년 『외국인투자의 유치촉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 발표되었다.
강화된 규제정책 (1973~1977)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실현으로 일본의 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부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의 효과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투자유치 분야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였다.
다소 완화된 규제정책 (1978~1983)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지 20년 내외가 되는 이 기간 중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1980년 9월 25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고, 단계적인 자본자유화 방침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대폭 완화된 규제정책 (1984~1992)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해외로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가 시작된 시기이었다.
자유화 정책 (1993~1997)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선진 개방화 단계 (1998~2000)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IMF 구제금융과 함께 선진국의 해외자본 유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고, 1998년 11월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 법 개정과 더불어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 정책이 법률로 제정되고, 선진 개방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전략적 유치 단계 (2001년 이후)	초기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후 부품소재, 성장동력 산업, 지역본부, R&D 센터 등으로 변화하였다.

말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김영진과 고현환 (2002)은 외국인직접투자유형을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이 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회사를 현지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이 기업의 최종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현지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다각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수평·수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직접투자로서 기업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정영철 (2011)과 한동호 (2015)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를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990년대 초

반부터 자유화 단계에서 1990년대 후반의 선진 개방화 단계를 걸쳐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유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찰하였다.

문휘창과 정진섭 (2010)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경영여건, 수요요건, 생산여건, 관련분야, 정부분야 등의 5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경영여건에서는 경영제고, 신경영기법 도입,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구조조정 축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요요건에서는 국내 시장의 성장, 수출증가, 글로벌 테스트 시장으로서 매력도를 꼽았다. 생산여건에서는 자본유입, 고용증진, 기술이전 및 확산, 생산성 향상 등을 주요 효과로 보았다. 관련분야에서는 전·후방 연관 효과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연관 효과로 파악하였으며, 정부분야에서는 세

Fig. 1. Inward FDI Index in Korea (2013–2018)



수확대, 투자촉진, 시스템개선 등을 경제적 효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100억 달러 전후에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FTA를 계기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유치가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로의 유치 확대 및 신규 발굴로 인하여, 2011년부터 다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1>에서 보면 2015년부터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다. 신고 기준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다. 2018년에는 각각 신고기준 및 도착기준으로 269억 달러와 163억9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 2. 선행연구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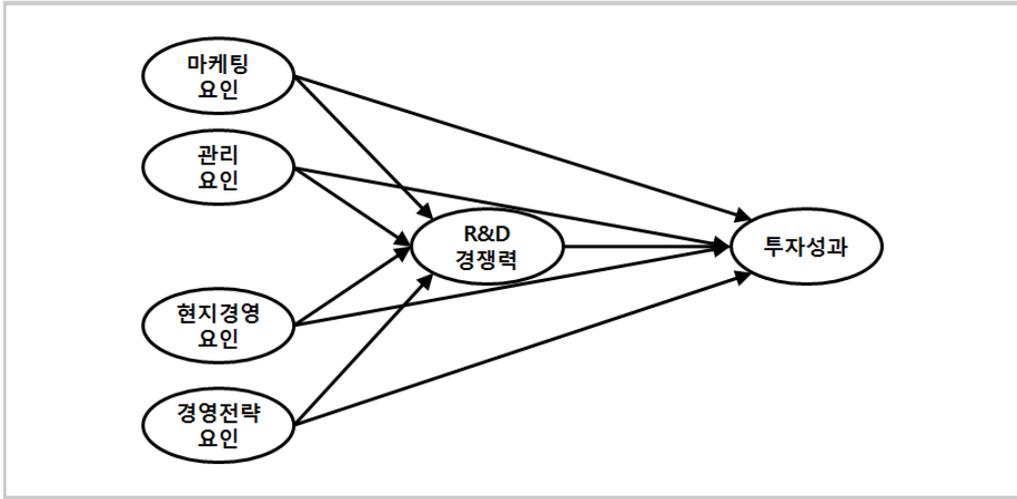
Dunning (1980)과 이양수 (2003)는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재투자요인들을 시장 확보, 자원 확보, 기술 및 자산 확보, 무역장비 회피 등으로 구분하였고, Goldstein (1985)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oree and Guisinger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기업들 74건의 외국투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투

자정부국의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다국적기업의 투자결정 및 재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UNCTAD (1998)에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안전성,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형평성, 유치행정 인센티브, 사회간접자본 구비여부,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투자실행 관련 지원 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OECD (2003)에서는 무역장벽요인, 현지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정치적 안정성, 조세 정책, 인건비 및 운송비 등의 저렴한 생산비, 현지국과의 친숙성 등을 들고 있고, 박봉규와 김용덕 (2004)은 투자유치 양적 달성만을 추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현행 투자 인센티브제도 및 재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재투자 결정요인 차원에서 내수시장 규모 확대와 성장 가능성이 라고 주장하였다. 한병섭과 서민교 (2005)는 한국시장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다국적기업 내부역량 활용과 투자대상국내 내부 네트워크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박영렬과 송윤아 (2007)는 한국자회사의 독점자산인 기술력, 마케팅능력과 한국 현지에서의 사업경험이 현지자회사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철 (2010)

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능력과 새로운 자원의 습득·갱신 능력을 동적역량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보고, 동적역량은 현지자회사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쟁우위와 재투자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원식과 김석용 (2011)은 행정서비스요인, 재정적요인, 노동환경요인, 무역정책요인, 생활환경요인과 사회시설기반요인으로 구분하여 다국적기업의 재투자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박란주와 여경철 (2012)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마케팅 능력 중에서도 전략 차별화와 홍보효과를 주요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김재경과 이봉수 (2012)는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의 R&D 센터를 대상으로 현지화 역량 및 R&D 효율성 및 성과요인을 사례분석하여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Nicolas et al. (2013)는 우리나라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서 현지자회사의 투자성과를 분석하였다. Slangen (2013)은 다국적기업은 투자 현지국가의 정책 불안정 상황 하에서 그린필드 투자 및 합병을 통해서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의 재투자를 확대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목남희 (2014)는 수명주기별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쇠퇴기시점에서는 잉여금을 이용한 재투자보다는 배당으로 사외유출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Balasescu (2014) and Astuti et al. (2015)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와 경쟁력 연구에서 마케팅믹스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Tzokas et al. (2015)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서의 현지자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을 흡인하는 능력을 고찰하였다. Lin et al. (2016)은 다국적기업 재투자 연구에서 현지자회사의 흡수 능력과 사업구조의 안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Chen et al. (2016)은 현지자회사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전략적 능력, 서비스 혁신과 신제품의 성능을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윤기창 (2016)은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보유한 흡수 능력의 역할과 진입 방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식이전, 네트워크(기업 및 정부 네트워크)와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Neves et al. (2016)는 포르투갈에 투자된

다국적기업의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유계하와 이춘수 (2016)는 한국기업의 현지자회사의 성과극대화 및 재투자 연구에서 현지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중요한 변수로 강조하였다. Hao and Song (2016)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요인으로 본사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흡수능력 보다 현지자회사의 기술능력, 마케팅 능력, 시장연계능력 등을 더 중요시 하였다. Jeong et al. (2016)은 현지자회사에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이 본사의 핵심역량 강화와 투자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ida et al. (2016)는 현지자회사의 ICT 능력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에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규명하였다. 유자영과 이지나 (2016)는 한국진출 중국기업의 자본 및 투자성격을 산업별, 시간별, 투자수준 등의 구분하고 현지자회사의 자본투자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Cacciolatti and Lee(2016)는 다국적기업의 마케팅 능력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서 마케팅 능력을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규명하였다. 김준현 (2016)은 글로벌 시장개방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R&D분야의 투자에서의 투자효율성을 강조하였다. 홍승린과 최원석 (2016)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metropolitan 지역과 non-metropolitan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Stack et al. (2017) and Terjesen and Patel (2017)은 글로벌기업의 투자성과 분석 연구에서 제품 및 공정의 혁신을 중요한 변수로 언급하였다. 임정대 외 (2018)는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도 그린필드형과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린필드형 투자가 혁신에 보다 더 적극적이다 주장한다. Yang and Zhang (2018)은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 연구를 통해서 현지자원, 대내환경, 경제성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핵심 변수라고 연구하였다. 조정환과 김태항 (2018)은 투자대상국의 부패 정도와 정치적 위험지수를 분석하였고, 부패 수준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재투자 및 M&A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chim et al. (2018)은 글로벌화 및 현지화 능력 수준을 핵심요인으로 다국

Fig. 2. Study Model



적기업의 투자성과를 연구하였다. Fu et al. (2018)는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시 현지자회사의 혁신성과에 따라 투자성과가 달라진다고 규명하였다.

###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다국적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이며 마케팅요인, 관리요인, 현지경영요인, 경영전략요인, R&D 경쟁력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요인들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국적기업의 재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분석의 틀 및 가설의 설정

〈Fig. 2〉 연구모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경쟁력이자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R&D 경쟁력을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마케팅요인, 관리요인, 현지경영요인, 경영전략요인이 R&D 경쟁력과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주요 요인들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R&D 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H1-1 마케팅요인은 R&D 경쟁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마케팅요인은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R&D 경쟁력은 마케팅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2-1 관리요인은 R&D 경쟁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관리요인은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R&D 경쟁력은 관리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H3-1 현지경영요인은 R&D 경쟁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현지경영요인은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R&D 경쟁력은 현지경영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nts

구분	변수	측정 항목
종속변수	투자성과	매출 증가율 본사로부터의 지원 증가율 인지도 상승률
	마케팅요인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홍보 및 판로개척 경쟁력
독립변수	관리요인	인사·노무·조직 안정성 재무 건전성 사업구조 안전성
	현지경영요인	현지기업과의 협력 정도 임원진의 현지화 정도 정부지원 제도 활용 정도
	경영전략요인	차별화 및 다각화 수행 정도 인수합병 전략 수행 정도
매개변수	R&D 경쟁력	기술혁신 정도 R&D 활성화 정도 지식재산권 등록 정도 R&D 연계활동 정도

- H4-1 경영전략요인은 R&D 경쟁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경영전략요인은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R&D 경쟁력은 경영전략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 2. 가설검증 및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들은 기존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변수들을 추출한 후, 관련 담당교수,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가, 통계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 검토를 걸쳐서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급분석을 수행하므로, 카테고리의 수가 많은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Table 2>

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였다.

## 3. 표본특성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규모별, 업종별, 진출기간별 비례할당을 실시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552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내 R&D센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초기투자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내 R&D센터 및 현지에 재투자하고 있는 14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였다. 특히 응답자는 투자성과와 재투자 업무과약이 가능하고 의사결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 및 관리자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마케팅 요인	제품 경쟁력	0.852	0.166	0.086	0.037	0.256	0.151
	가격 경쟁력	0.907	0.021	0.139	0.076	0.218	0.089
	홍보 및 판로개척 경쟁력	0.825	-0.009	0.123	-0.040	0.059	-0.022
관리요인	인사·노무·조직 안정성	0.074	0.854	0.127	-0.057	0.023	0.136
	재무 건전성	0.045	0.902	0.189	0.022	-0.130	0.012
	사업구조 안전성	0.017	0.875	0.147	0.222	-0.083	-0.021
현지경영 요인	현지기업과의 협력 정도	0.142	0.161	0.884	-0.067	0.074	0.143
	임원진의 현지화 정도	0.156	0.093	0.914	0.002	0.095	0.106
	정부지원 제도 활용 정도	0.071	0.281	0.809	0.179	0.211	0.037
경영전략 요인	차별화 및 다각화 수행 정도	-0.003	0.160	-0.047	0.799	0.072	0.204
	인수합병 전략 수행 정도	0.039	-0.033	0.090	0.804	0.100	0.063
R&D 경쟁력	기술혁신 정도	0.112	0.054	0.127	0.141	0.776	0.140
	R&D 활성화 정도	0.219	-0.009	-0.010	0.165	0.859	0.081
	지식재산권 등록 정도	0.264	-0.134	0.118	0.001	0.841	0.048
	R&D 연계활동 정도	0.005	-0.124	0.150	-0.054	0.840	0.199
투자성과	매출 증가율	0.072	0.173	0.052	0.494	0.045	0.740
	본사로부터의 지원 증가율	-0.051	0.042	0.165	0.003	0.193	0.870
고유값	인지도 상승률	0.340	-0.028	0.092	0.171	0.253	0.643
		2.542	2.545	2.488	1.706	3.072	1.916
변량(%)		14.120	14.142	13.822	9.479	17.064	10.643
총변량(%)		14.120	28.262	42.084	51.563	68.627	79.271
Cronbach's $\alpha$		0.880	0.882	0.899	0.623	0.883	0.763

#### IV. 실증분석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크론바하  $\alpha$ (Cronbach'  $\alpha$ ) 계수를 구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관련성은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 활용된 다문항(Multi-Item)의 공동 요인을 파악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켜주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였다. 요인 분석에

**Table 4.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변수	1	2	3	4	5	6
1. 마케팅요인	1					
2. 관리요인	0.125	1				
3. 현지경영요인	0.302 **	0.351 ***	1			
4. 경영전략요인	0.214 *	0.140	0.163	1		
5. R&D 경쟁력	0.386 ***	-0.185 *	0.266 **	0.269 **	1	
6. 투자성과	0.384 ***	0.156 *	0.238 *	0.503 ***	0.405 ***	1

Not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있어서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의 상호 독립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요인 수는 고유 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KMO 측도(Kaiser Meyer-Olkin)는 엄격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0.6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유치(Communality)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0.4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은 0.6을 기준으로 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모두  $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  $\alpha$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마케팅부문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마케팅요인(공유치: 0.702~0.903, 설명력: 14.1%)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관리부문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관리요인(공유치: 0.773~0.868, 설명력: 14.1%)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현지경영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현지경영요인(공유치: 0.817~0.890, 설명력: 13.8%)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경영전략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영전략요인(공유치: 0.672~0.712, 설명력: 9.5%)

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5는 R&D 경쟁력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R&D 경쟁력(공유치: 0.674~0.819, 설명력: 17.1%)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6은 투자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투자성과(공유치: 0.632~0.831, 설명력: 10.6%)라 명명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모두 0.6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케팅요인, 관리요인, 현지경영요인, 경영전략요인, R&D 경쟁력, 투자성과의 총 누적설명력이 79.3%이며, 신뢰도 검사 결과 값은 0.623~0.899에 별무리 없이 결과에 수용되었다.

## 2.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4>는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본 데이터이다. 분석 결과, 투자성과에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마케팅요인( $r=0.384$ ,  $p < 0.001$ ), 관리요인( $r=0.156$ ,  $p < 0.05$ ), 현지경영요인( $r=0.238$ ,  $p < 0.05$ ), 경영전략요인( $r=0.503$ ,  $p < 0.001$ )으로 나타났고, R&D 경쟁력( $r=0.405$ ,  $p < 0.001$ )이 투자성과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경쟁력에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마케팅요인( $r=0.386$ ,  $p < 0.001$ ), 현지경영요인( $r=0.266$ ,  $p < 0.01$ ), 경영전략요인( $r=0.269$ ,  $p < 0.01$ )으로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영전략요인( $r=-0.185$ ,  $p < 0.05$ )은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단계	변인	$\beta$	SE	t(p)	R2	F
1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마케팅→R&D 경쟁력	0.305 **	0.079	3.302(0.001)	0.250	8.324 ***
	관리→R&D 경쟁력	-0.229 *	0.080	-2.464(0.015)		
	현지경영→R&D 경쟁력	0.222 *	0.086	2.297(0.024)		
	경영전략→R&D 경쟁력	0.200 *	0.088	2.229(0.028)		
2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마케팅→투자성과	0.265 **	0.079	3.071(0.003)	0.345	13.170 ***
	관리→투자성과	-0.079	0.080	-0.910(0.365)		
	현지경영→투자성과	0.114	0.086	1.266(0.209)		
	경영전략→투자성과	0.439 ***	0.088	5.244(0.000)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마케팅→R&D 경쟁력→ 투자성과	0.205 *	0.082	2.294(0.024)	0.374	11.844 ***
	관리→R&D 경쟁력→투자성과	-0.034	0.081	-0.385(0.701)		
	현지경영→R&D 경쟁력→투자성과	0.070	0.087	0.774(0.441)		
	경영전략→R&D 경쟁력→투자성과	0.399 ***	0.089	4.743(0.000)		
	R&D 경쟁력 →투자성과	0.197 *	0.099	2.151(0.034)		

Not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마케팅요인, 관리요인, 현지경영요인, 경영전략요인 등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R&D 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마케팅요인( $\beta=0.305$ ,  $p < .01$ ), 관리요인( $\beta=-0.229$ ,  $p < .05$ ), 현지경영요인( $\beta=0.222$ ,  $p < .05$ ), 경영전략요인( $\beta=0.200$ ,  $p < .05$ )은 모두 R&D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마케팅요인( $\beta=0.265$ ,  $p < .01$ ), 관리요인( $\beta=0.439$ ,  $p < .001$ )은 투자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경쟁력을 투입한 세 번째 단계에서 마케팅요인, 경영전략요인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고, 효과크기는 감소하였으며, 마케팅요인( $\beta=0.205$ ,  $p < .05$ ), 경영전략요인( $\beta=0.399$ ,  $p < .001$ )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R&D 경쟁력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마케팅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1.907$ ,  $p > .05$ ), 경영전략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013$ ,  $p < .05$ ).

### 4. 가설검증 결과

총 12개 가설 중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이 부분채택을 보여 주었고, 4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케팅요인은 R&D 경쟁력과 투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R&D 경쟁력이 마케팅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하면서 부분채택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관리요인은 R&D 경쟁력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지경영요인은 R&D 경쟁력에만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경영전략요인은 R&D 경쟁력과 투자성과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서 현지자회사의 경영전략요인들에 대한 중요도가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R&D 경쟁력은 경영전략 요인과 투자성과 사이를 매개하면서 정(+)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 V. 요약 및 시사점

국내진출 20,000여개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이 수출기여, 고용효과, 선진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등의 국내·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

한 지대한 관심 및 지원 정책개발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가 양호한 투자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국적기업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재투자 및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의 새로운 명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성과 분석과 재투자에 관하여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하기와 같은 실증결과 및 기존논문과의 차별성을 얻었다.

첫째, 마케팅요인(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홍보 및 판로개척 경쟁력), 관리요인(인사·노무·조직 안정성, 재무 건전성, 사업구조 안전성), 현지경영요인(현지기업과의 협력, 임원진의 현지화, 정부지원제도 활용), 경영전략요인(차별화, 다각화, 인수합병)은 모두 R&D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케팅요인과 경영전략요인이 투자성과에 정(+)의 효과를 얻었다. 이는 국내자회사의 매출 증가, 이익 증가, 인지도상승 등의 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관리요인과 현지경영요인은 기각되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R&D 경쟁력은 매개변수로서 마케팅요인과 경영전략요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관리요인과 현지경영요인과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은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마케팅요인, 관리요인, 현지경영요인, 경영전략요인, R&D 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하여 경영자원과 투자자원을 우선순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적기업의 지속적인 재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수립 시에 본 논문의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학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의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재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성과 및 재투자 관련 연구를 촉진시키는 시급성이 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로서는 연구대상 기업을 기업규모별, 업종별, 진출기간별 등으로 다양화해서 연구결과를 최대한 일반화하려고 하였지만,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한정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서 과대 해석하는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화설문조사 시 응답자가 얼마만큼의 성실한 답변을 주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자 설문조사 대상 기업수의 확대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와 같은 대면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이고자 한다.

## References

- Achim, M. V., S. N. Borlea and C. A. Mare (2018), "Geocentric Behavior Dimension's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5(1), 401-420.
- Ahn, Keon Hyung (2017), "Recent Trends in OECD Guidanc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ir Implication: Focusing on Korea NCP's Countermeasures Strategy for Peer Review", *Korea Trade Review*, 42(4), 159-184.
- Astuti, R., R. L. R. Silalahi and G. D. P. Wijaya (2015), "Marketing Strategy Based on Marketing Mix Influence on Purchasing Decisions of Malang Consumers at Giant Olympic Garden Mall (MOG), Malang City, East Java Province, Indonesia",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cience Procedia*, 3, 67-71.

- Balasescu, S. (2014), "Contributions to the Foundation of the Marketing Mix for Retail Companies",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sov, Series V: Economic Science*, 7(1), 17-24.
- Cacciolatti, L. and S. H. Lee (2016),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ng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Market Orientation, marketing Strategy and Organizational Powe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2), 5597-5610.
- Cho, Jung-Hwan and Tae-Hwang Kim (2018), "Analysis of Determinants on the Entry Modes of Multinational Firms: Focused on the Effects of Corruption and Political Instability", *Korea Trade Review*, 43(1), 177-197.
- Chen, K. H., C. H. Wang, S. Z. Huang and G. C. Shen (2016), "Service Innovation and New Product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Market-linking Capabilities and Market Turbu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72, 54-64.
- Chung, Won-Sik and Seok-Yong Kim (2011), "Th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investment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Gyeongnam Province",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5(4), 109-126.
- Dunning, J. (1980), "Toward an Electron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4), 9-31.
- Fu, Xiaolan, Jun Hou and Xiaohui Liu (2018), "Unpac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ese firms", *World Development*, 102, 111-123.
- Goldstein, L. M. (1985), "Choosing, the right site", *Industrial Week*, 85.
- Han, Byoung-Sop and Min-Kyo Seo (2005),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nowledge Creation for MNCs in Korea", *Business Review of Woosuk University*, 20(3), 133-159.
- Han, Dong-Hong (2015),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 Local Government Studies*, 16(4), 197-220.
- Hao, S. and Song, M. (2016), "Technology-driven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Are Strategic Capabilities Missing Link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 751-759.
- Hong, Seung-Rin and Choi, Won-Seok (2018), "A Study on Components Affecting Regional Growth of FDI in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2(4), 369-385.
- Jeong, G. Y., M. S. Chae and B. I. Park (2016), "Reverse Knowledge Transfer from Subsidiaries to Multinational Companies: Focusing on Factors Affecting Market Knowledge Transfer",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Administration*, 34(3), 291-305.
- Jung, Young-Chul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ffects of Inward Direct Investment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Inje, Korea: Inje University.
- Kim, Jae-Kyung and Bong-Soo Lee (2012), "A Study on Performance Determinant of R&D Centers of Multination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rms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7(1), 287-311.
- Kim, Jun-Hyun (2016), *A Study on Efficiency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 in Global Open Market*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Korea: Dankook University.
- Kim, Young-Jin and Heon-Hwan Ko (2002), "Facilit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Jeju Island", *Journal of Island Tourism Research*, 6(4), 41-71.
- Kwon, Yung-Chul (2010), "Dynamic Capabilities of Multinational Subsidiaries: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Korea Business Review*, 39(5), 1151-1175.
- KOSIS (2018),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2017* (Webpage). Available from [www.kosis.kr](http://www.kosis.kr)

- Lin, H., J. Su and A. Higgins (2016), "How Dynamic Capabilities Affect Adoption of Management Innov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 862-876.
- Loree, D. W. and S. E. Guisinger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Equity FDI",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2), 281-299.
- Mok, Nam-Hee (2014), "The Impact of Foreign Investor on Pay-out ratio according to Corporate Life Cycle",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53, 276-291.
- Moon, Hwy-Chang and Jin-Sup Jung (2010), "Economic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Case of Korea",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7(2), 133-156.
- Neves, A., A. C. Teixeira and S. T. Silva (2016), "Exports-R&D Investment Complementary and Economic Performance of Firms Located in Portugal", *Investigacin Econmica*, 125, 125-156.
- Nicolas, F., S. Thomsen and M. N. Bang (2013), *Lessons from Investment Policy Reform in Korea*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13/02), Paris: OECD, 5-42.
- Parida, V., P. Oghazi and S. Cedergren (2016), "A Study of How ICT Capabilities Can Influence Dynamic Capabilities", *Journal of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29(2), 179-201.
- Park, Bong-Kyu and Yong-Duk Kim (2014),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Korea's FDI Policies on Foreign Companies' Investment Decisions", *Korea Trade Review*, 29(6), 287-311.
- Park, Nancy and Kyong-Chol Yo (2012), "The Strategic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6(1), 125-146.
- Park, Young-Ryeol and Yun-Ah Song (2007), "The Impact of Subsidiary Competencies on Performance of MNEs in Korea", *Yonsei Business Review*, 44(1), 1-15.
- Slangen, A. H. L. (2013), "Greenfield or Acquisition Entry? The Roles of Policy Uncertainty and MNE Legitimacy in Host Countries", *Global Strategy Journal*, 3(3), 262-280.
- Stack, M. M., G. Ravishankar and E. Pentecost (201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41, 86-97.
- Terjesen, S. and P. C. Patel (2017), "In Search of Process Innovation: The Role of Search Depth, Search Breadth, and Industry Environment", *Journal of Management*, 43(5), 1421-1446.
- Tzokas, N., Y. A. Kim, H. Akbar and H. Al-Dajani (2015), "Absorptive Capacity and Performance: The Role of Customer Relationship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High-tech SM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47, 134-142.
- Yang, Lin and Xian Zhang (2018), "Assessing Regional Eco-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in China: A Bootstrapping Approach in Global Data De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3, 100-111.
- Yim, Jeong-Dae, Seok-Chin Kim and Se-Jin Jung (2018), "The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Innovation in Korean Industries", *Korea Trade Review*, 43(2), 87-105.
- Yi, Yang-Soo (2003),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o the Busa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KRDA)*, 15(3), 45-64.
- Yoon, Ki-Chang (2016), "The Knowledge Transfer Network and Performance of Chinese Subsidiary in Korean MNCs: Focusing on Roles of Absorptive Capacity and Entry Mode", *Korea Trade Review*, 41(5), 325-350.
- Yu, Jae-Har and Chun-Su Lee (2016), "A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Autonomy on Performance of MNC Subsidiaries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8(2), 195-218.
- Yu, Ja-Young and Ji-Na Lee (2016), "Analysis of Chinese Oversea Direct Investment (ODI) and Methodology of Investment Simulation in Korea",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Review*, 70, 109-133.